



CHAPTER 2

마약류별 일반현황

1. 아편, 헤로인
2. 코카인
3.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향정물질[NPS]
4. 대 마

01

1. 아편, 헤로인¹

1. 아편 및 헤로인 세계 동향 개요

-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 2년 연속 감소
 -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이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 연속으로 직전 연도 대비 각 17%, 30%가량 감소함(2018년은 345,800ha, 2019년은 240,800ha). 세계 양귀비 재배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프가니스탄 및 미얀마에서도 겨울 가뭄 등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가 보고됨
 - 2019년도 세계 아편 총생산량은 약 7,610톤으로 2018년도 대비 0.1% 감소하였고, 그중 1,180~1,480톤은 가공되지 않고 아편으로 소비되었으며, 472~722톤가량은 헤로인으로 가공되었음
 - 2018년도 세계 아편 적발량의 95~100%는 아프가니스탄 및 서남아시아(이란, 파키스탄)가 차지하였고, 2017년(693톤) 대비 소폭 증가한 704톤을 기록함
- 2018년도 헤로인 세계 적발량은 96톤
 - 2018년도 헤로인은 북미, 유럽, 아·태지역에서 대부분 적발되었고 적발량은 96톤으로 2017년도(102톤) 대비 6%가량 감소하여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중국, 이란, 파키스탄, 터키, 미국의 적발량이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추세임
 - 미얀마에서 생산된 헤로인은 아·태지역으로 공급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¹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BOOKLET 2, "DRUG USE AND HEALTH CONSEQUENCES", BOOKLET 3, "DRUG SUPPLY".

헤로인은 발칸국가, 이란, 파키스탄을 경유(최근에는 아프리카 경유 증가)하여 유럽으로 공급되며, 남미 지역에서 생산된 헤로인은 주로 미국으로 공급됨

2. 소비(남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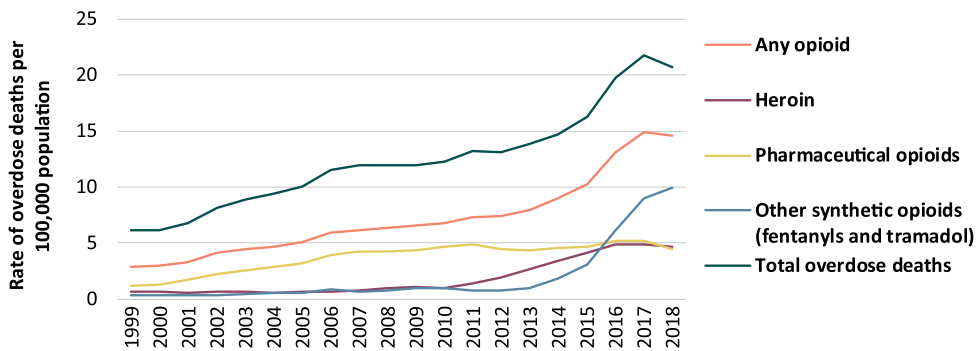
- ④ 2018년도에 아편제(Opiates)² 남용자(3,040만 명 추정)를 포함한 아편유사제(Opioids)³ 남용 인구는 5,78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성인 인구(15~64세)의 약 1.2%로 2017년도 5,340만 명에 비해 약 8% 증가한 수치임
- ④ 2018년도 세계 성인 인구 중 아편유사제 남용인구는 북미 지역이 3.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오세아니아 지역이 3.3%, 서·중동·서남아시아 지역이 2.6%, 남아시아 지역이 2%를 기록함
- ④ 美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에 따르면 2019년도 미국의 마약남용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2018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약 70,000명(美 국립마약남용연구소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는 2018년도 67,367명, 2019년도 70,630명으로 파악)이며, 이중 약 절반가량이 펜타닐 등 아편유사제(Fentanyl and other synthetic opioids) 남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됨
- ④ 미국 내에서 2018년도 아편유사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46,802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4.6명의 사망률을 보였으며, 2019년도에는 49,860명이 아편유사제 남용으로 사망하여 전년 대비 6.5% 증가함

² 아편제(Opiates)는 아편(Opium),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등 양귀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 또는 추출된 알칼로이드 [유엔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Terminology and Information on Drugs 및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EU Drug Markets Report 2019]

³ 아편유사제(Opioid)는 아편 첨가제(Opiates)를 포함한 펜타닐(Fentanyl), 메타돈(Methadone) 등 합성 유사체(Synthetic compounds)를 통칭[유엔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Terminology and Information on Drugs 및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EU Drug Markets Report]

- 캐나다에서는 아편유사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16년도 3,023명에서(인구 10만 명당 8.4명) 2018년도 4,398명(인구 10만 명당 11.9명)으로 2년 사이 5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사망자의 약 80%는 펜타닐에 의한 사망으로 보고됨
- 북미 지역(하이드로코돈, 옥시코돈, 코데인, 트라마돌과 펜타닐) 및 중동과 서·북아프리카 지역(트라마돌) 내 여러 국가에서 아편유사제의 높은 비의료적 사용률이 나타남

[그림 2-1] 미국의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사망 통계(1999~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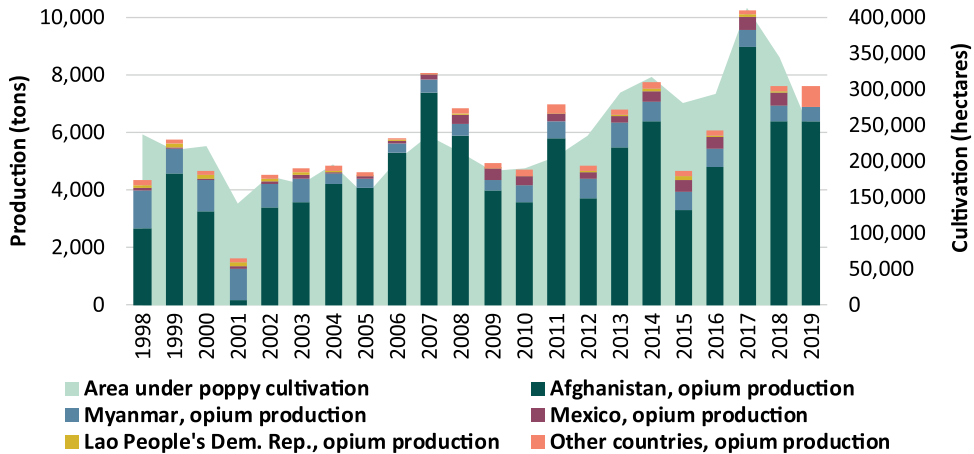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3. 생산 동향

- 2019년도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면적은 2018년도(263,000ha) 대비 38% 감소한 163,000ha(세계 재배면적의 68% 수준)로, 2013년도 관측 이래 가장 적은 면적을 기록함. 2019년도 세계 아편 총생산량은 7,610톤으로, 그중 6,126~6,426톤이 헤로인 제조에 사용되어 세계 헤로인 총생산량은 472~722톤임

[그림 2-2] 아편 생산 및 양귀비 재배면적 통계(1998~2019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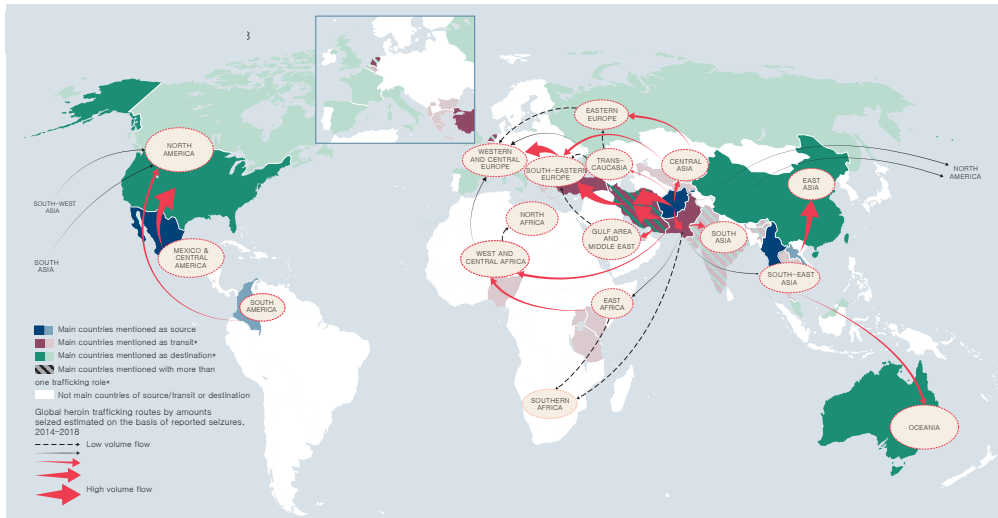
4. 밀매 동향

- 2017년도 세계 아편제의 압수량은 693톤으로 2016년도 대비 5%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2017년도 세계 헤로인 압수량은 103톤으로 2016년도 대비 13% 증가, 2017년도 세계 모르핀 압수량은 87톤으로 2016년도 대비 33% 증가함
- 2018년도 세계 아편제 압수량은 약 704톤으로 2017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며, 2018년도 세계 헤로인 압수량은 약 97톤이고, 2018년도 세계 모르핀 압수량은 약 43톤으로 2017년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아프가니스탄 내 모르핀 압수량이 2017년도 대비 70%가량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대부분의 아편제는 아편을 생산하는 지역(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등)과 그 인접 지역에서 압수되고 있고, 2018년도 세계 아편 총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아시아에서 세계 아편제 총압수량의 80%가 적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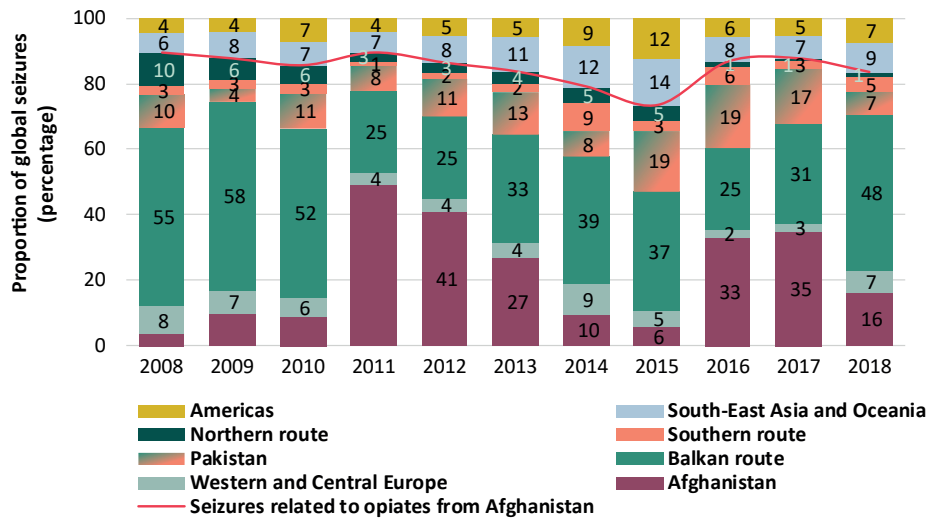
- ④ 2018년도 세계 아편제 총압수량의 절반이 넘는 53%가 이란에서 적발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아프가니스탄에서 12%, 터키에서 9%, 파키스탄에서 5%,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4%, 3%가 압수됨
- ④ 2018년도 헤로인과 모르핀의 압수량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2017년도 대비 증가하였는데, 유럽 지역은 24% 증가하여 30톤에 이르는 최대 압수량을 기록, 미주 지역 8%가 증가, 아프리카 지역 2배 증가, 반면 서남아시아 지역은 2017년도 대비 42% 감소하였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3년 연속 감소하여 2009년도 이후 가장 낮은 압수량이 보고됨
- ④ 아프가니스탄 산(産) 아편류의 밀수 경로는 이란과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중·서유럽 지역으로 이동하는 ‘발칸 루트(Balkan Route)’, 남아시아, 걸프, 중동, 아프리카 및 그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남부 루트(Southern Route)’,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해 러시아 연방으로 이동하는 ‘북부 루트(Northern Route)’, 이란과 코카서스 지역(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을 경유하여 러시아 연방 및 중·서유럽 지역으로 이동하는 ‘코카서스 루트(Caucasus Route)’가 있음
- ④ 특히 발칸 루트는 세계 최대 헤로인 밀매 경로로, 2018년도 발칸 루트에서 압수된 헤로인과 모르핀의 양은 2018년도 전체 압수량의 58%에 해당하며, 중·서유럽 지역에서 적발된 헤로인의 80% 이상이 발칸 루트를 통하여 유입된 것으로 보고됨
- ④ 아프가니스탄 산을 제외한 아편제의 공급원은 주로 동남아시아(특히 미얀마) 지역 인데, 이 지역으로부터 태국 등 동남아시아 인접 국가, 중국 등의 동아시아 지역 또는 오세아니아(주로 호주) 지역으로 밀수입됨
 - ※ 2008년도에는 호주의 헤로인 압수량 중 26%만이 동남아시아산으로 보고되었으나, 2017년도 호주의 헤로인 압수량 중 99%가 동남아시아산으로 보고됨

[그림 2-3] 세계 헤로인 유통 경로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그림 2-4] 밀수 경로별, 지역별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 비중(2008~2018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표 2-1] 국내 헤로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 현황⁴

(단위 : 명)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검거인원	0	4	0	0	3	1	1	1	0	2
압수량(g)	0	3.5	0	0	4.54	0.03	3.73	1.93	0	8.81

- 1990년대 초반까지 헤로인 밀수의 경우,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요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중간 경유지로 이용되었음
- 다만,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등이 투약할 목적으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소규모로 헤로인을 밀수입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나, 내국인 투약사범은 최근 10여 년 동안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음

주요 헤로인 밀수사건

- 2006. 6.경 홍콩인이 홍콩 첵랍콕 공항에서 헤로인 약 18.2g을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바지주머니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2.경 대만인이 헤로인 약 370.27g을 콘돔 6개에 나누어 담은 뒤 4개는 항문 안에, 2개는 바지 양쪽 주머니에 각각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09. 7.경 대만인 3명이 캄보디아에서 헤로인 약 1.2kg을 콘돔 17개에 나누어 담고 각자의 항문 안에 5~6개씩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⁴ 헤로인은 압수되었으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피의자를 특정 못할 경우)에도 포함

- ④ 2009. 10.경 나이지리아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인도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334g을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8.경 미국인이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0.98g 및 해시시 3.57g을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2. 1.경 베트남인 3명이 헤로인 7.7g을 콘돔에 넣어 입 속에 은닉한 채 베트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의정부지검)
- ④ 2015. 6.경 미국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0.65g을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5. 11.경 미국인이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2.54g을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 ④ 2016. 12.경 미국인이 국제통상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0.03g을 밀수입 (대전지검)
- ④ 2017. 3.경 미국인이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캐나다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3.73g을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8. 3.경 미국인이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1.93g을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20. 8. 29.경 미국인이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1.22g을 밀수입(평택지청)
- ④ 2020. 11. 14.경 한국인이 국제항공우편을 이용하여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로 헤로인 3.32g을 밀수입, 위 한국인은 2020. 10. 25. 대마수지 5.01g, 2020. 11. 25. 코카인 3.99g, 2020. 11. 26. 대마수지 5.04g 등도 함께 밀수입함(제주지검)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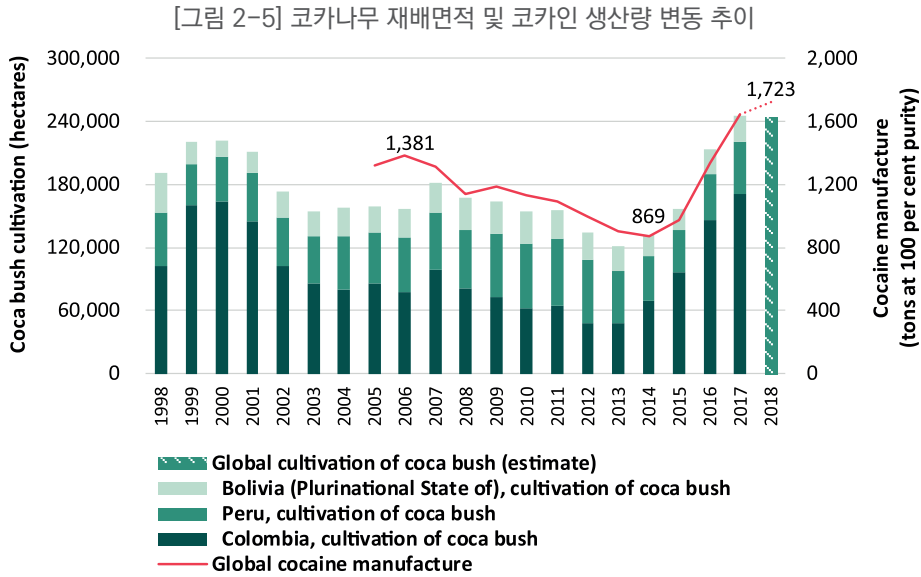
코카인⁵

1. 코카인 세계 동향 개요

- 2018년도 세계 코카나무 재배면적은 2017년도 수준 유지
 - 세계 코카나무(coca bush) 재배량(cultivation)은 2000~2013년도까지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2013년도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도 역대 최고치(245,400ha)를 기록하였고, 2018년도는 2017년도와 유사한 수준임(244,200ha)
 - 2018년도 주요 생산국 코카나무 재배량은 볼리비아(5.7%)와 콜롬비아(1.2%)의 경우 2017년도 대비 감소, 페루(4.4%)는 증가함
- 코카인 제조지역의 확산
 - 코카인 제조지역은 코카나무 생산국(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이 아닌,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남미 지역 국가이며, 최근에는 벨기에,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지역에서도 제조시설 적발사례가 보고됨
 - 유럽지역의 코카인 남용인구는 약 400만 명(세계 남용인구 1,900만 명의 약 21%)으로 추정되고, 2017년도 유럽 코카인 소매 시장은 약 90억 유로(한화 약 13조원, 유럽 전체 마약시장의 31%) 규모임
 - 유입경로는 '남미에서 생산 → 모로코, 나이지리아, 우루과이, 자메이카 등을 경유 → 유럽시장으로 유입'이며, 주요 소비국별 코카인 도매가격(유로/kg)은 네덜란드

⁵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BOOKLET 2, "DRUG USE AND HEALTH CONSEQUENCES", BOOKLET 3, "DRUG SUPPLY",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발간 "EU Drug Markets Report 2019".

25,000, 벨기에 28,650, 스페인 35,415, 노르웨이 37,773, 슬로베니아 40,000, 이탈리아 40,918, 폴란드 50,000, 슬로바키아 70,000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2. 소비(남용) 동향

- 2018년도 세계 코카인 남용자는 1,900만 명으로, 이는 세계 성인인구(15~64세)의 약 0.4%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8년도 세계 코카인 남용자의 약 30%에 해당하는 55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며, 20% 이상인 440만 명이 중·서유럽 지역에 거주하고, 약 15%에 해당하는 280만 명이 남미 지역에 거주함
- 2018년도 인구 대비 코카인 남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인구의 2.2%가 코카인을 남용하였으며, 다음으로 북미 지역이 인구의 2.1%, 중·

서유럽 지역이 인구의 1.4%, 남미 지역이 인구의 1.0%가 코카인을 남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3. 생산 동향

- ④ 코카나무는 주로 안데스 산맥 주변 국가들에서 재배되며 특히 콜롬비아, 볼리비아, 페루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됨
- ④ 2018년도 세계 코카 재배면적은 244,200ha로 2017년 대비 0.5% 감소하였고, 콜롬비아의 코카 재배면적 또한 169,000ha로 2017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콜롬비아 내에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으며 세계 코카 재배면적의 70%에 달함
- ④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점진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던 볼리비아의 코카 재배면적이 2018년도에는 2017년도 대비 5.7% 감소한 23,100ha를 기록한 반면, 페루의 코카 재배면적은 2017년도 대비 4.4% 증가한 52,100ha임⁶
- ④ 2018년도 세계 코카인 생산량은 1,723톤으로 2017년도 대비 4.6%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2014~2018년도 사이에 세계 코카인 생산량은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나 증가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둔화하는 양상을 보임
- ④ 콜롬비아 내에서 생산성 높은 경작지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2018년도 콜롬비아의 코카인 생산량은 2017년도 대비 약 5.9% 증가한 1,120톤으로 보고되며, 이는 세계 코카인 생산량의 65%에 해당함

⁶ White House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ONDCP releases data on coca cultivation and production in Peru", 30 September 2019.

[그림 2-6] 2019. 4. 콜롬비아 경찰의 코카인 제조시설(콜롬비아 Caucasia지역) 단속 장면



※ 출처 :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발간 EU Drug Markets Report(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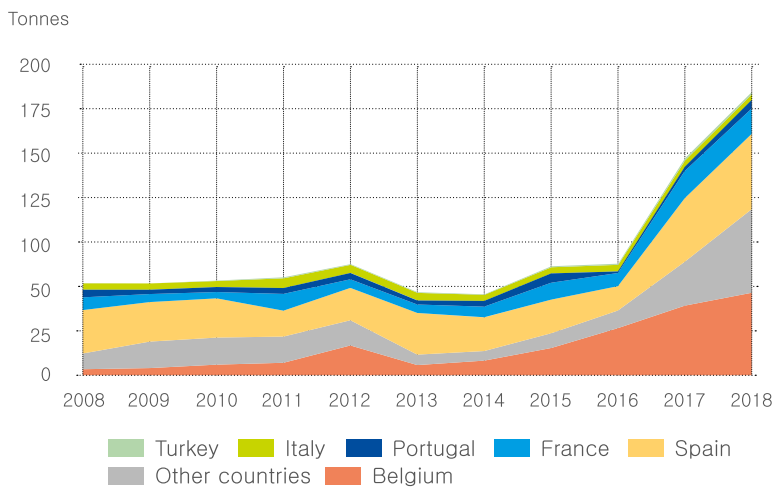
4. 밀매 동향

- ④ 2018년도 세계 코카인 압수량은 2017년도 대비 2.7% 증가한 1,311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콜롬비아, 미국 등을 포함한 미주 지역에서 세계 코카인 총 압수량의 85%가 적발됨
- ④ 남미 지역의 전체 압수량은 2017년도 정점에 달했다가(748톤) 2018년도에는 4% 감소한 721톤으로 보고되었고, 그중 가장 많은 압수량이 적발된 콜롬비아를 비롯한 페루, 볼리비아에서는 2017년도 대비 압수량이 소폭 감소한 반면, 브라질에서는 65% 폭증한 79톤을 기록하여 남미 지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압수량이 적발됨
- ④ 북미 지역의 코카인 압수량은 2014년도 91톤에서 2018년도 272톤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고, 같은 해 미국의 압수량은 2017년도 대비 14% 증가한 254톤으로, 이는 세계 코카인 총 압수량의 19%에 해당하는 수치임

④ 코카인의 주요 밀수 경로는 안데스 산맥 주변 국가에서 북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특히 콜롬비아에서 미국으로의 경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며, 미국 본토에서 압수된 코카인 샘플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90%가 콜롬비아, 6%가 페루, 나머지 4%가 불상의 국가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됨⁷

④ 두 번째 주요 밀수 경로는 안데스 산맥 주변 국가에서 중·서유럽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로로, 2018년도 중·서유럽 지역에서 압수된 코카인의 양은 177톤으로 2014년도 압수된 코카인 양(62톤)에 비해 세 배가량 증가하였고, 위 지역으로 밀수된 코카인 압수물 샘플을 분석한 결과 콜롬비아産이 가장 많았으며 페루産, 볼리비아産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7] 유럽 지역 코카인 압수량 추이(2008~2018년)



※ 출처 : 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EMCDDA) 발간 European Drug Report(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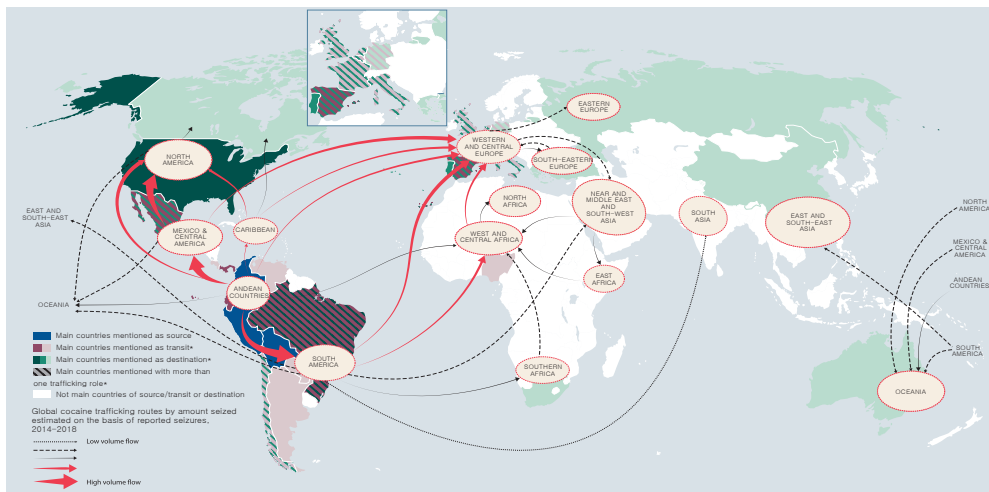
④ 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은 변동이 심한 편이며, 2018년도 아시아 지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은 3.5톤으로 2017년도(3.3톤) 대비 소폭 증가하였고,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은 5.6톤으로 직전 연도에 비해

⁷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DEA, 2019 National Drug Threat Assessment (December 2019).

65%가량 급증하였음

- ❶ 아시아 지역 내에서 압수된 코카인의 주된 원산지는 콜롬비아이며, 브라질에서 밀수입되는 경우도 자주 언급되고 있음. 주요 밀수 경로는 아랍 에미리트 연방을 경유하여 중국 또는 이스라엘로 이동하는 경로임
- ❷ 2014~2018년도까지 오세아니아 지역 코카인 압수량의 97%가 호주에서 적발, 호주의 2018년도 코카인 압수량은 2.1톤으로 2014년도 압수량(756kg)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으나 2017년도 대비 50%가량 감소함. 2018년도 상반기 호주에서 압수된 코카인의 84%가 콜롬비아⁸로 보고됨
 - ※ 코카인이 주 소비국인 북미 지역에서 오세아니아로 밀수입되는 이유는 오세아니아 지역의 코카인 도매가격이 경유국인 미국 등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수익성이 높기 때문임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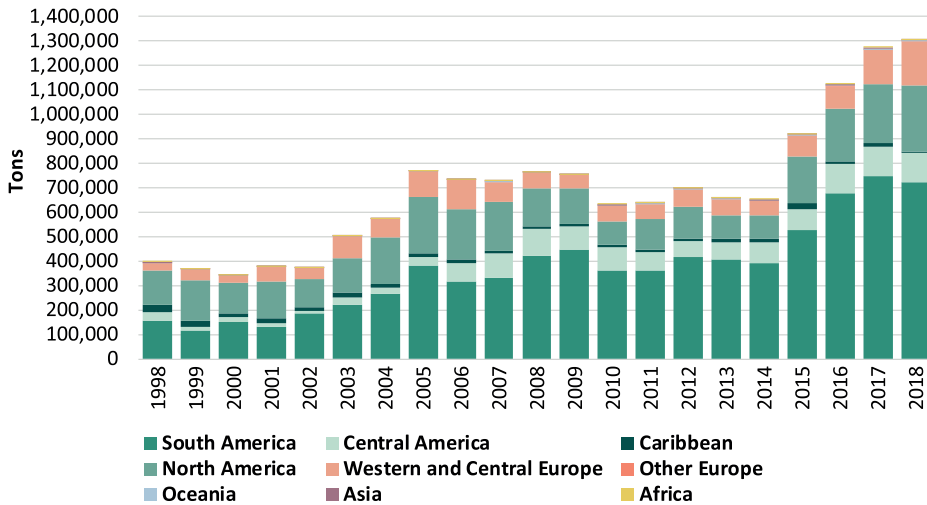
[그림 2-8] 세계 코카인 유통 경로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⁸ 2017~2018년 코카인 도매가격(1kg): 호주(AUD 165,000 ~ 230,000, USD 110,000 ~ 154,000 상당), 미국 (USD 4,000 ~ 45,000)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BOOKLET 3, "DRUG SUPPLY".

[그림 2-9] 지역별 코카인 압수량(1998~2018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마약 연례보고 질의서(Annual Report Questionnaire)

5. 국내 코카인 유통추세

[표 2-2] 국내 코카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 현황⁹

(단위 : 명)

연도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검거인원	4	3	8	5	4	6	6	22	14	6
압수량(g)	2,153	63.62	1,215	11	10	10,943	131	88,321	106,932	47,948

- 🔍 1988. 10.경 서울중앙지검이 미국에서 서울시내 호텔에 투숙 중인 올림픽 관광객에게 발송한 코카인 10g을 적발(소위 ‘얼굴 없는 코카인 사건’)한 것을 필두로 1990. 2.경 부산동부지청이 코카인 150g을 밀매한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1990. 9.경 서울중앙지검이 국제 코카인 밀수조직을 적발하여 코카인 976g을 압수하는 등 코카인 사범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짐

⁹ 코카인은 압수되었으나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피의자를 특정 못할 경우)에도 포함

- ④ 2014년도에는 한국인 3명이 미국에서 코카인 약 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15년도에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약 2.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이 적발, 2016년도에는 독일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0.03g을 휴대하여 밀수입한 사건, 2017년도에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3.01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37.46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 2019년도에는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86g 등 밀수입한 사건,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을 항공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한 사건 등 유학이나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마약사범들이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코카인을 밀수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④ 2016년도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삼아, 최종목적지인 홍콩으로 코카인 약 10kg을 밀수입 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 2018년도에는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13kg을 카타르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마카오로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6.8kg을 카타르와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마카오로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 콜롬비아인이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코카인 약 3kg을 상파울루, 두바이 및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라오스로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 성명불상자가 에콰도르 과야킬항에서 코카인 약 63.88kg 선적한 후 멕시코 만자니요항 및 부산항을 경유하여 중국 신강항만으로 밀수출하려다가 부산항에서 적발된 사건, 2019년도에는 브라질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4.5kg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라오스로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사건 등 코카인 대량 밀수입 사건은 우리나라를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여 홍콩, 마카오, 라오스 등으로 밀수출하려한 사례가 다수 적발됨
- ④ 2020년도 역시 성명불상자가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47kg을 선적한 후 싱가포르, 부산항을 경유하여 일본 오사카로 밀수출하려다가 부산항에서 적발된바, 여전히 우리나라가 코카인 대량 밀수입 중간 경유지로 이용하고 있음, 한편 한국인이 미국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55.98g을 밀수입한 사건, 오스트레일리아인이 영국과 네덜란드에서 항공통상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각 6.89g, 6.23g을 밀수입한 사건,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항공통상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1.95g을 밀수입한

사건 등 외국인 및 한국 유학생들이 본인들이 투약할 목적으로 소량으로 밀수입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됨

주요 코카인 밀수사건

- 2004. 4.~5.경 캐나다인이 홍콩 국제 폭력조직인 삼합회의 지시로 유학생 및 어학 연수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코카인 20kg을 호주, 일본 등으로 밀수출 (수원지검)
- 2004. 11.경 미국 유학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코카인 3g을 국제 특급 우편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2006. 3.경 네덜란드인이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프랑스를 경유,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4kg을 밀수출하려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 (인천지검)
- 2007. 4.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약 3.2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8.경 나이지리아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5.2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9.경 나이지리아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3.6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9.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58.34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2011. 3.경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을 출발, 파나마를 경유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에 코카인 2.1kg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적발 (부산지검)

- ① 2013. 1.경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약 9.72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성남지검), ② 2013. 3.경 한국인 2명이 미국에서 코카인 2.13g을 국제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대전지검), ③ 2013. 11.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18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3. 11.경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3.3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부산지검)
- ① 2014. 1.경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4. 2.경 미국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약 2g을 휴대하여 인천국제 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4. 2.경 한국인 2명이 미국에서 코카인 약 7.8g 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부산지검)
- ① 2015. 10.경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2.8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② 2015. 10.경 캐나다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0.55g을 휴대 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5. 11.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2.03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④ 2015. 12.경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코카인 0.5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① 2016. 4.경 독일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0.03g을 휴대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6. 9.경 미국인이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약 6.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6. 9.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6.96g을 휴대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6. 10.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13.95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⑤ 2016. 10.경 캐나다인이 콜롬비아에서 코카인 약 4.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① 2017. 4.경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3.01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북부지검), ② 2017. 6.경 한국인이 미국에서 코카인 37.46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동부지검), ③ 2017. 12.경 한국인이 홍콩에서 코카인 60g 을 휴대하여 밀수입 (창원지검)

- ① 2018. 1.경 중국 국적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6.8kg이 은닉된 여행용가방 2개를 휴대한 채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8. 3.경 루마니아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1.3kg이 은닉된 노트북 가방을 휴대한 채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8. 11.경 성명불상자가 에콰도르에서 코카인 63.88kg을 선적한 후 부산항에 입항하여 밀수입 (부산지검), ④ 2018. 11.경 콜롬비아인이 파나마에서 코카인 3kg이 은닉된 가방을 휴대한 채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8. 12.경 중국 국적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13k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휴대한 채 밀수입 (인천지검)

- ① 2019. 6.경 홍콩인이 브라질에서 두바이를 경유하여 한국으로 코카인 불상량이 함유된 와인 10병(총중량 13kg 상당)을 밀수입 (인천지검), ② 2019. 6.경 미국 국적의 교포가 미국에서 코카인 1.86g, 대마 20.35g 등을 밀수입 (인천지검), ③ 2019. 7.경 브라질인이 브라질에서 코카인 약 4.5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19. 8.경 선장(필리핀인)이 코카인 약 100kg을 싣고 콜롬비아에서 출항하여 충남 태안 해상에 진입하여 밀반입 (해경, 서산지청), ⑤ 2019. 9.경 한국인이 미국에서 항공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16.17g, MDMA 300정 등 밀수입 (수원지검)

- ① 2020. 9.경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항공등기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1.95g, MDMA 5.42g, 케타민 5.05g, LSD 50장 등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② 2019. 11.경 오스트레일리아인이 영국에서 항공통상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6.89g와 2020. 1.경 네덜란드에서 항공통상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6.23g을 각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③ 2020. 1.경 한국인이 미국에서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코카인 55.98g, 엑스터시 1,201정, 케타민 79.96g를 각 밀수입 (인천지검) ④ 2020. 5.경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국제통상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0.5g, LSD 6장 밀수입, 2020.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0.51g 밀수입, 2020. 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0.51g을 밀수입 (대구지검), ⑤ 2020. 11.경 한국인이 네덜란드에서 항공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3.99g 등 밀수입 (제주지검) ⑥ 2020. 8.경 부산항에서 브라질 출발 싱가포르 부산을 경유 일본 오사카 도착 예정인 선박에 은닉된 코카인 약 47kg 적발 (서울중앙지검)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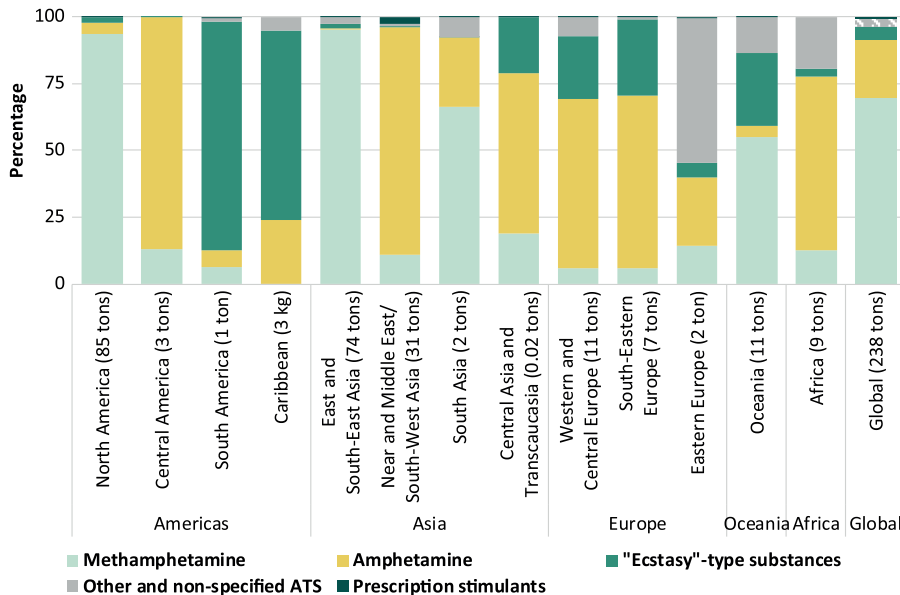
암페타민류 각성제[ATS]와 신종향정물질[NPS]¹⁰

1. 세계 동향 개요

- 세계에서 제조되는 암페타민류 각성제(Amphetamine-Type Stimulants, ATS)의 주종은 메트암페타민임
 - 지난 20여 년간 ATS 압수량은 증가 추세인데, 특히 2009~2018년도 사이 압수량은 4배 증가하였고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압수량이 7배 증가함
 - 2018년도 압수된 ATS류는 메트암페타민 228톤(전년 대비 23% 증가), 암페타민 21톤(전년 대비 59% 감소), MDMA 12톤(전년 대비 14% 감소), 기타 ATS류 19톤(전년 대비 291% 증가)의 추이를 보임
 - 2018년도 세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의 80%가 미국, 태국 및 멕시코에 집중, ATS의 경우 터키, 파키스탄 및 시리아에서 압수량이 가장 많았으며 MDMA는 세계 압수량의 약 50%가 터키, 미국 및 호주에 집중됨
 - 2014~2018년도 지역별 압수 현황을 살펴보면,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북미, 동·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주에서 압수량이 집중되었고, ATS는 중동/서남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및 중남미에서, MDMA는 주로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압수량이 집중됨

¹⁰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BOOKLET 2, "DRUG USE AND HEALTH CONSEQUENCES", BOOKLET 3, "DRUG SUPPLY".

[그림 2-10] 대륙별 ATS 압수량(톤) 및 전체 압수량 대비 대륙별 압수 비율(%) 2014~2018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 신종향정물질(New Psychoactive Substances, NPS)의 범람 계속

- 매년 평균적으로 500여 종의 신종향정물질이 UN 회원국 내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보이고, 2018년도 기준 541종의 신종향정물질이 확인되는데 대부분은 각성제 계열임
- 북미 지역에서는 아편유사제 계열 신종향정물질(Opioid NPS)을 과다 투약하여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고, 유럽지역에서는 각성제 계열 신종향정 물질(NPS Stimulants)을 주사하여 투약하는 사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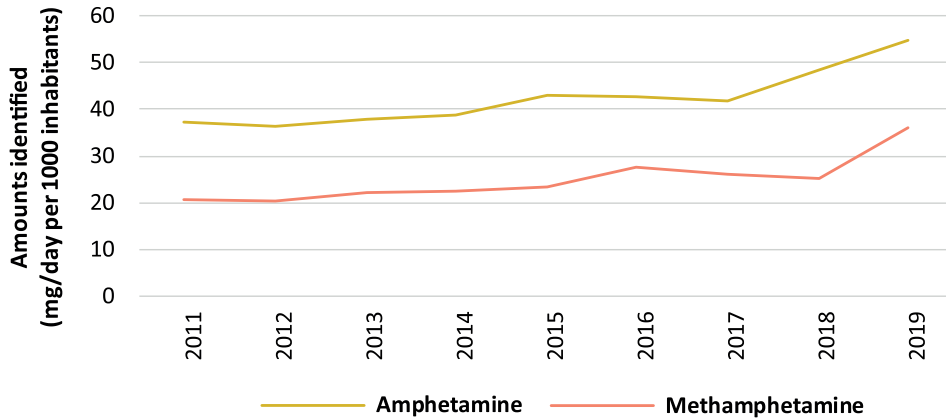
2. 소비(남용) 동향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④ 세계 성인 인구(15~64세)의 0.5%인 2,700만 명이 암페타민 마약류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북미와 오세아니아 지역(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수치가 각각 2.3% 및 1.3%로 높게 나타남
- ④ 아시아 지역에서는 성인 인구(15~64세)의 0.5%가 암페타민 마약류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세계 평균치와 비슷한 수치임
- ④ 2018년도 기준 미국에서는 12세 이상 인구의 1.9%(510만 명)가 각성제를 오남용(misuse of pharmaceutical stimulants)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연령대의 0.7%(190만 명)는 메트암페타민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④ 2018년도 미국의 18~25세 인구의 메트암페타민 사용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26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상당한 증가세가 나타남
- ④ 최근 수년간 미국에서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의 순도는 90% 이상으로 높아졌으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56 USD/g)
- ④ 2009년도 이후 중·서부 유럽 국가들에서는 암페타민 남용 인구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생활 폐수(wastewater) 분석 연구¹¹에 따르면 암페타민 사용량은 증가추세인 것으로 보임
- ④ 2018년도 유럽의 15~64세 연령대의 암페타민 남용 비율은 0.5%(250만 명)로 보고되는데,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이 비율이 각각 1.2%, 1.8%로 평균치보다 더 높게 나타남

¹¹ 생활 폐수 속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 함량 측정법

[그림 2-11] 연도별 유럽 140개 도시 생활폐수에 함유된 암페타민 및 메트암페타민 함량
2011~2019년(mg/도시 거주 1,000명 1일 평균 배출 생활폐수량)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 🔍 세계 암페타민류 남용 인구의 약 1/3(990만 명)이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는 데, 이 지역에서는 정제형 메트암페타민(tablet type methamphetamine, 일명 ‘야바’) 또는 결정형 메트암페타민(crystalline methamphetamine, 일명 ‘크리스탈 메스’ 또는 ‘아이스’)의 남용이 증가하고 있음
- 🔍 2016년도 호주에서는 14세 이상 인구의 1.4%인 약 28만 명이 암페타민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57%는 결정형 메트암페타민을 주로 사용하였고, 20%는 분말 형식(methamphetamine powder)의 메트암페타민을, 11%는 의약품 암페타민류(pharmaceutical amphetamines)를 비의료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 뉴질랜드에서 실시한 2018/2019 조사에서는 15세 이상 인구의 1%가량인 39,000명의 응답자가 암페타민류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폐수 연구에 따르면 뉴질랜드 전역에서 메트암페타민 사용 흔적이 감지됨

- 2018년도 세계 15~64세 중 0.4%(2,050만 명)가 엑스터시(MDMA)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 수치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2.2%로 높게 나타났고 북미지역에서는 0.9%, 중·서부유럽지역에서는 0.8%로 나타남
- 엑스터시는 주로 클럽 등지에서 오락 목적으로 남용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

나. 신종향정물질(NPS)

- 신종향정물질 한 종류만을 투약하는 방식은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고, 유럽 지역에서 노숙자나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 합성 대마(synthetic cannabinoids)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의 유럽내 주요 남용자는 노숙자, 재소자 등이며, 특히 재소자들이 시설외부에서 합성대마를 반입하는 방법(유럽마약모니터링센터, EMCDDA 자료)은 공범 등이 음식물, 조류 사체 등에 숨겨 시설 내로 던져서 전달 받으며 독일, 폴란드, 영국에서는 드론(drone)을 이용하는 사례가 보고됨

3. 생산 동향

가. 메트암페타민

- 메트암페타민의 제조 방법 및 밀조 시설의 변화
 - 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및 일부 유럽지역에서는 에페드린이나 슈도에페드린이 메트암페타민의 주 원료 물질(key precursor chemicals)이나, 최근 북미지역에서 제조되는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P-2-P(1-phenyl-2propanone) 또는 P-2-P의 전구물질이 주 원료임
 - 적발된 밀조시설의 수는 2010년도 10,600개에서 3,700개(2017년도) 및 2,100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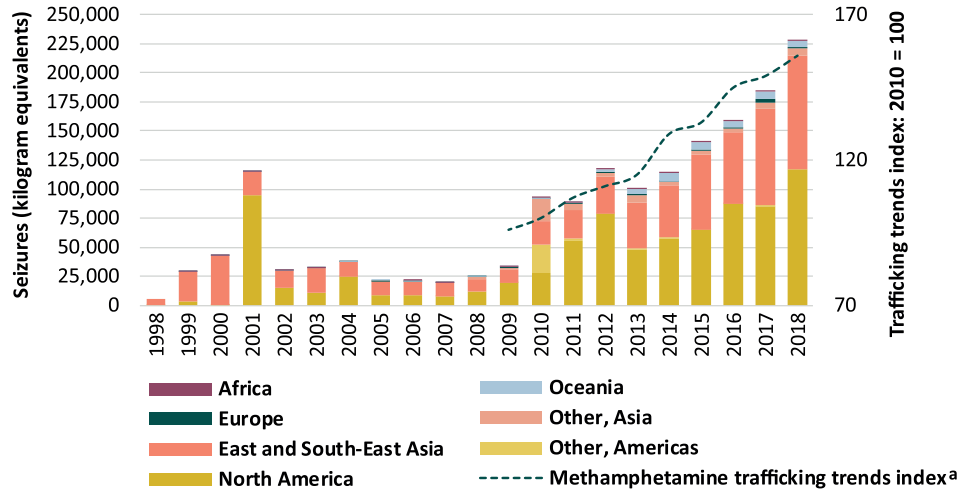
(2018년도)로 감소 추세이지만, 밀조시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시설수가 감소하였을 가능성, 당국의 단속 역량 부족으로 밀조시설이 적발되지 못하여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 실제로 2014~2018년도 사이 28개국에서 28,000여 개의 밀조시설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기간 52개국에서 메트암페타민이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어 메트암페타민의 제조 지역은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음
- 2014~2018년도 사이 세계 밀조시설 적발 건수의 약 6%가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중 약 94%가 중국과 이란에 위치함
-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적발된 메트암페타민 밀조시설의 약 5%가 유럽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유럽에서 적발된 밀조시설의 90%는 체코에서 단속 되었음

지역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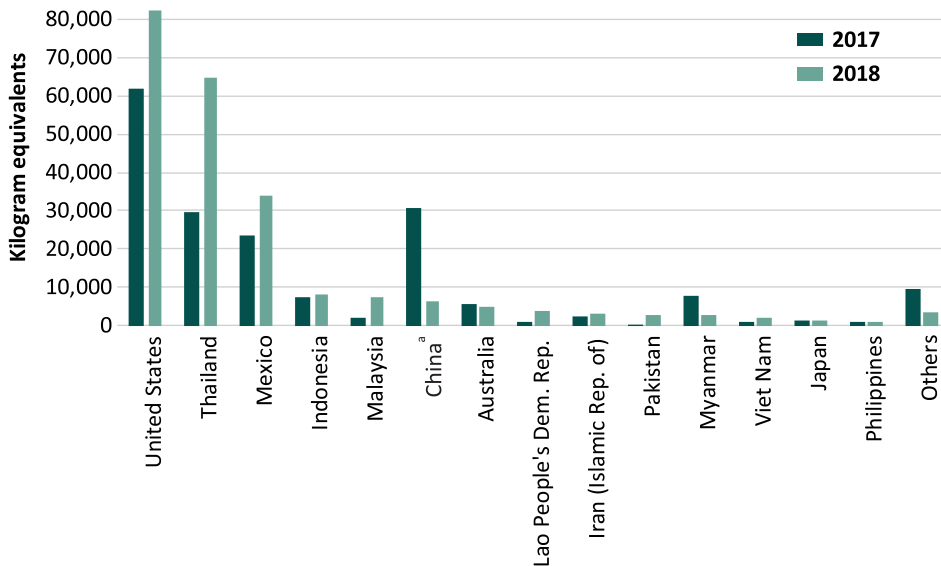
- 2018년도 북미지역에서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의 양은 117톤으로 2009년도에 비해 6배 증가하였고, 이중 99%가 미국과 멕시코에서 적발된 수치임
- 2018년도 미 세관당국(the United States customs authorities)에 의해 적발된 메트암페타민의 95%가 멕시코와의 국경 지역 부근에서 단속되었으며, 마약류를 은닉하여 반입하는 수법도 인편, 차량, 기계류 부속품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최근 드론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방법으로까지 진화하였음
- 2018년도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약 100톤으로 2009~2018년도 사이 압수량은 8배 증가하였고, 2019년도 잠정 압수량 역시 2018년도의 수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임
-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에서의 압수량이 가장 많았으나, 2018년도 자료에 의하면 아시아 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태국 약 66%, 인도네시아 8%, 말레이시아 8%, 중국 6%순임

[그림 2-12] 대륙별 메트암페타민 압수량(kg) 및 밀매 지수(점선 부분, 2010년 100 기준)
1998~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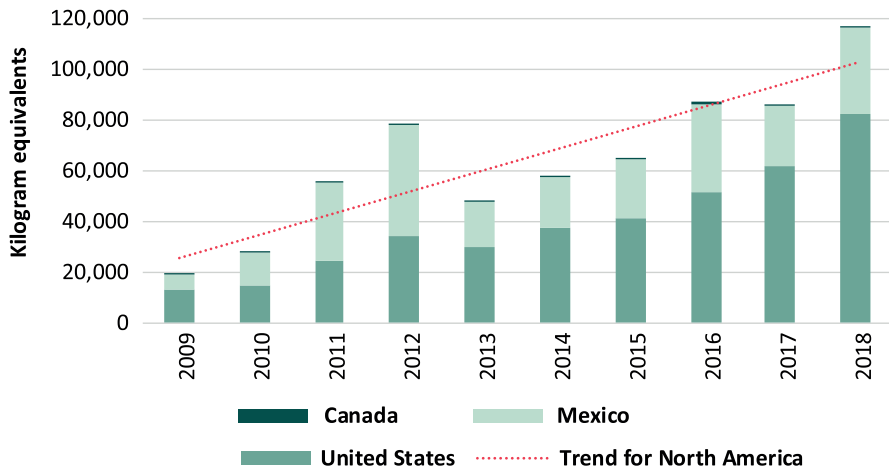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그림 2-13] 메트암페타민 주요 적발국별 압수량(kg) 2017~2018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그림 2-14] 북미 지역 메트암페타민 압수량(kg) 2009~2018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 암페타민 제조는 유럽지역에 집중

- 2014~2018년도 사이 세계 암페타민 밀조시설 749개가 적발 되었는데, 절반이 넘는 시설(417개)이 유럽지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그 중에서도 서·중부 유럽에 316개, 동유럽에 1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됨
- 같은 기간 네덜란드에서 가장 많은 암페타민 밀조 시설이 적발되었는데, 폴란드, 리투아니아와 벨기에가 그 뒤를 따름
- 2014~2018년도 사이 북미지역에서 적발된 암페타민 밀조시설은 개수로 따지면 세계 5위 정도이며 대부분이 미국에 위치하고 있음
-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메트암페타민 밀조시설이 주로 적발되지만 암페타민 제조 시설도 일부 단속되기도 함
- 2014~2018년도 사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얀마와 인도에서만 몇몇 암페타민 밀조시설이 적발되었으나, 미얀마에서 적발된 시설의 경우 실제로 암페타민을 제조한 것인지 암페타민류 각성제를 제조한 것인지 불명확함

🔍 캡타곤(captagon) 제조

- 캡타곤은 본래 페네틸린(fenetyline)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제품명이었으며 1986년

페네틸린이 국제 규제 대상이 되면서 1990년대 말에는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였으나, 암페타민과 카페인을 주성분으로 한 ‘모조 캡타곤(counterfeit captagon)’이 ‘원조’ 캡타곤의 로고와 제품명으로 유통되기 시작함

- 캡타곤은 복용 시 며칠간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강력한 각성효과가 있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 국가(IS)의 요원들 사이에서 전투용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중동 지역의 갈등 및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이 지역 내 마약류의 제조와 유통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캡타곤의 제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 및 테러 조직이나 반군 단체가 캡타곤의 제조와 유통을 통해 자금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여 중동 지역에서는 암페타민 보다는 캡타곤의 제조가 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2-15] 2020년 6월 이탈리아 경찰에 적발된 14톤 분량의 캡타곤



※ 출처 : BBC News “Captagon: Italy seizes €1bn of amphetamines ‘made to fund IS’”, 2020. 7.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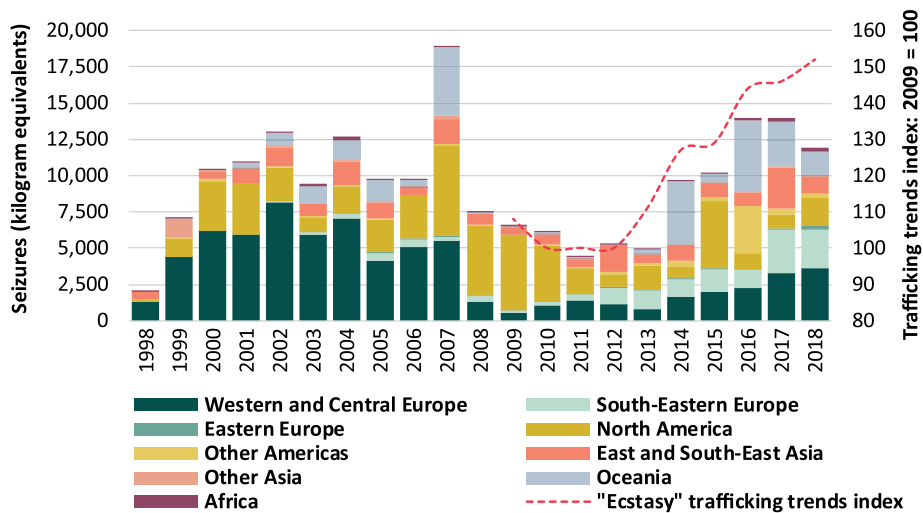
📌 엑스터시(MDMA) 적발량

- 2009~2018년도 사이 엑스터시 압수량 두 배 증가
- 2014~2018년도 사이 전 세계 엑스터시 압수량의 56%가 서·중부 유럽에서 적발되었고,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호주에서 98%가 적발됨.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압수량의 2/3가량이 북미지역에 집중, 아시아 지역에서는 96%가량이 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지역에 집중됨
- 2018년도 세계 엑스터시 압수량은 12톤으로 2011년도 4.4톤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특히 유럽 지역의 경우 2011년도 1.8톤이었던 압수량이 2018년도 6.3톤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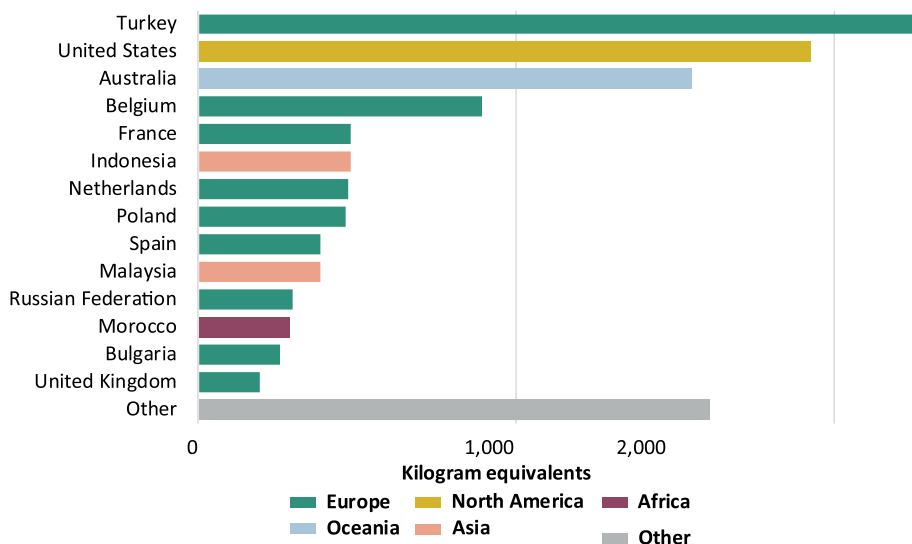
- 특히, 2018년도 터키에서는 엑스터시가 2톤 이상 압수되었는데, 이는 미국과 호주에서 압수된 수량을 넘어선 수치임

[그림 2-16] 지역별 엑스터시 압수량(kg) 및 밀매 지수(붉은 점선, 2009년 100 기준) 1998~2018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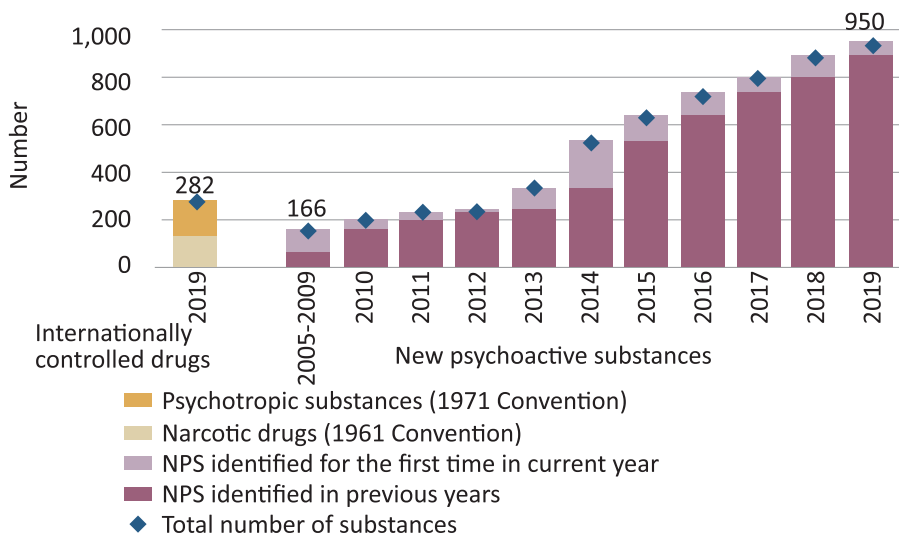
[그림 2-17] 엑스터시 주요 적발국별 압수량(kg) 2018년



나. 신중향정물질(NPS¹²)

- 2009년도까지 확인된 NPS의 수는 166개에 불과하였지만, 2018년도 말까지 확인된 NPS의 수는 892개로 2009년도 대비 네 배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합성 NPS는 868개이며, 합성 NPS 중 38%가 각성제 계열, 30%가 합성대마 계열, 7%가 합성아편 계열임

[그림 2-18] 2019년도 국제 통제마약으로 등재된 약물 수 및 2005~2019년 사이 신중 향정물질로 등재된 물질 누적수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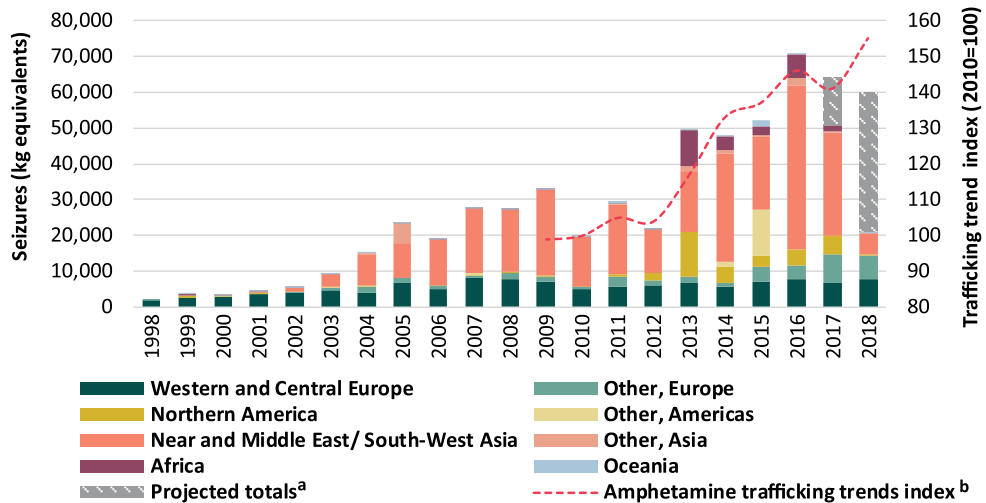
¹² New Psychoactive Substances: 국제적으로 통제 대상에는 올라와 있지 않으나 국제 통제 대상에 이미 오른 물질들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물질, 따라서 새로운 물질이 통제 대상에 오르는 순간 더 이상 '신중' 물질이 아님

4. 밀매 동향

가.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 ④ 암페타민류의 밀매는 대체적으로 중동 지역과 유럽 지역에 집중
 - 암페타민류 밀매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있어 핵심 자료인 중동 지역의 2018년도 자료가 미비하지만, 2014~2018년도 사이 전 세계 암페타민류 압수량의 54%가 중동 지역에서 보고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암페타민류 밀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압수된 암페타민류의 24%가 유럽지역에서 보고되었고, 14%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각각 6% 및 1%가 보고됨
- ④ 암페타민류는 지역 내 밀매가 활발
 - 2014~2018년도 사이 유럽 국가들의 마약류 동향 보고에 의하면 적발된 암페타민류의 원산지는 대부분 같은 지역인 것으로 나타남
 - 유럽 암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암페타민류의 제조국은 네덜란드 37%, 폴란드 20%, 리투아니아 11%, 벨기에 10%, 러시아 4% 및 불가리아 3% 순임
 - 유럽 지역에서 제조된 일부 암페타민류는 미주지역, 아시아, 아프리카와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밀수출되기도 함
- ④ 2014~2018년도 사이 중동 지역에서 암페타민류(주로 캡타곤)의 원산지로 가장 많이 보고되는 국가는 레바논과 시리아로 이 두 국가의 수치를 합하면 약 40%임
- ④ 위 암페타민류의 최종 목적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또는 카타르로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암페타민이 이동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9년 4월 레바논 당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당국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냉장트럭에 은닉된 캡타곤 142kg을 압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9년 5월에는 베이루트 라픽 하리리 공항에서 10kg의 캡타곤을 적발하였음

[그림 2-19] 지역별 암페타민류 압수량(kg) 및 밀매 지수(점선부분, 2010년 100기준) 1998~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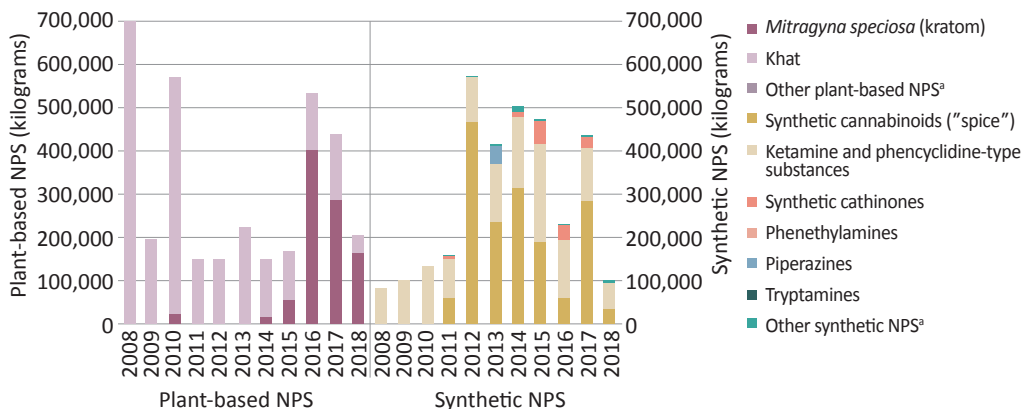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 2014~2018년도 사이 전반적으로 100개 회원국에서 엑스터시 적발 사례를 보고 하였는데, 이는 1994~1998년도 사이 62개 회원국에서 보고한 적발 사례보다 상승한 수치로 지난 20년간 엑스터시 밀매가 세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유럽에서는 2011~2018년도 사이 엑스터시 압수량이 세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1.8톤에서 6.3톤), 이는 엑스터시 가격의 하락 및 엑스터시 순도의 증가에 따라 엑스터시 암거래 시장이 확대된 결과로 보임
- 2018년도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엑스터시 압수량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북미지역에서 압수량 증가분과 일부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압수량 증가분에 기인한 측면이 크나, 남미지역에서는 2016년도를 정점으로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지역 등 압수량이 감소하여 감소세를 보임

나. 신중항정물질(NPS)

- NPS에 대한 통계는 변동성이 큰 편인데, 그 이유는 해당 물질에 대한 규제 정책이나 공급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고, 사법 당국의 단속 역량에 따라서도 적발 실적의 차이가 크기 때문임
- 2008~2018년도 사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는 72개국에서 합성 NPS(synthetic NPS)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식물계 NPS(plant-based NPS)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57개국에서만 보고가 이루어짐
- 최근 수년간 식물계 NPS(plant-based)나 합성 NPS(synthetic NPS)의 압수량은 연도별로 증감이 있었으나, 201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식물계통 NPS 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질은 크라툼(kratom)과 카트(khat) 인바, 크라툼은 2014~2018년도 사이 전체 식물계 NPS 압수량의 약 63%를 차지하였고 2018년도에는 82%를 차지함(나머지 압수량의 대부분은 카트가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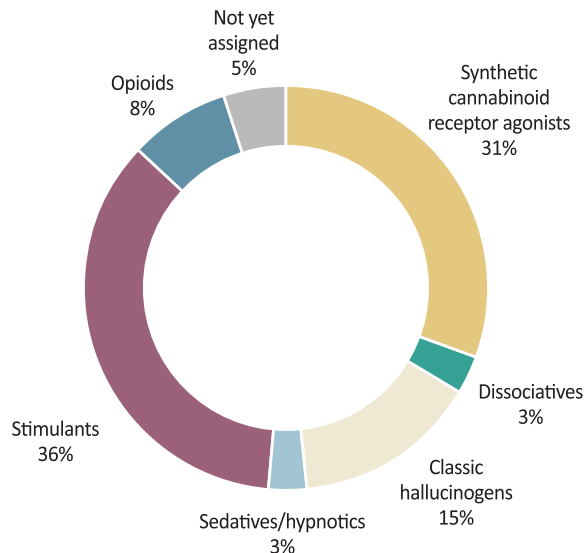
[그림 2-20] 세계 식물계 NPS 압수량(좌) 및 합성계 NPS 압수량(우) 2008~2018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 ④ 합성 NPS에 대한 압수량은 2009~2012년도 사이 증가 추세였으나, 2012년도 이후 감소세를 보이는데 2017~2018년도 사이 압수량이 44톤에서 10톤으로 큰 폭으로 감소함
- ④ 합성 NPS의 압수량이 대폭 감소한 데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정의상 특정 신종향정물질이 통제 대상에 오르는 순간 그 물질은 더 이상 '신종'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고, 북미, 유럽, 호주 등 주요 신종 향정물질이 유통되는 지역에서 신종 향정물질 밀매에 대한 규제 정책을 도입한 영향일 수도 있음
- ④ 합성 NPS의 지역적 밀매는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2001년 합성 NPS 압수에 대해 보고한 국가가 2개였던 것이 2008년도에는 20개로, 2017년도에는 50개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도에는 38개로 감소함

[그림 2-21] 투약 효과 별 NPS 비율 2009~2019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5. 국내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취급 추세

가. 메트암페타민 밀조 추세

- ①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주요 메트암페타민 밀조국가였지만 1990년대 들어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조조직이 거의 와해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산 메트암페타민이 밀수입되고 있음
- ② 그러나 최근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에서 메트암페타민 원료물질을 추출하는 제조법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됨에 따라 소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조사건이 발생하고 있음
- ③ ① 2010년도에는 화학박사가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② 2012년도에는 일반인이 인터넷으로 메트암페타민 제조법을 습득,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③ 2013년도에는 호주인이 유사한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및 일반인이 총 17회에 걸쳐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추출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④ 2015년도에는 조직폭력배가 6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⑤ 2016년도에는 일반인이 부친 운영의 공장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 ⑥ 2017년도에는 명문대 대학원생 등이 대학교 연구실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규모 메트암페타민 밀조 사례가 적발되고 있음
- ⑦ 2018년도에는 제조 기술자 등이 서울 소재 영세공장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 기술 미숙으로 메트암페타민 성분 불검출됨
- ⑧ 2019년도에는 중국인 및 대만인 등 3명이 서울 소재 호텔에서 메트암페타민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 아세톤 등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완제품 약 1.32kg 및 반제품 약 2.28kg 제조, 대구 소재 주택가에서 감기약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제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일반의약품 등을 이용한 제조방법을 배워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는 사례들이 꾸준히 적발됨

- 2020년도에는 마약사범 본인들이 투약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규모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한 사례를 적발한바,
 - 피의자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제조에 필요한 원료물질에 아세톤 등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1.8g 제조,
 - 피의자 주거지에서 에페린, 염산 등을 이용하여 메트암페타민 제조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 단속으로 정제공정 중단됨으로써 제조 미수,
 - 마약사범 3명이 마약 원료 구입, 자금 제공, 메트암페타민 제조 기술 습득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산둥성에서 메트암페타민을 제조하려 하였으나 제조기구가 폭발하는 바람에 제조 미수에 그침(제조일시는 2018. 6.경)

나. 향정사범 추세(메트암페타민 등 ATS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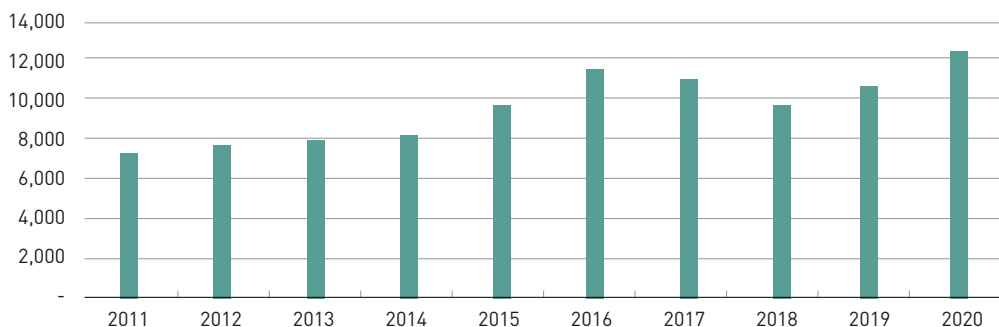
[표 2-3]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 추세

(단위 : 명)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단속인원	7,226	7,631	7,902	8,121	9,624	11,396	10,921	9,613	11,611	12,640
증감률(%)	6.7	5.6	3.6	2.8	18.5	18.4	-4.2	-12.0	20.8	8.9

- 향정사범은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8,000명 미만이었으나, 2014년도 8,100여명, 2015년도 9,600여명, 2016년도 11,300여명으로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7년도 10,900여명, 2018년도 9,600여명으로 소폭 감소함. 이후 2019년도에 다시 11,600여명, 2020년도 12,640명으로 증가하여 전체 마약류사범의 70.0%를 차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이 국내 주종 마약류임이 확인됨

[그림 2-22] 향정사범 추세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사건

- 2008. 5. 중국인이 중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부산지검)
- 2008. 10.경 한국인이 중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수원지검)
- 2008. 12.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카타르에서 필로폰 3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12.경 일본인이 터키에서 필로폰 약 856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12.경 일본인이 터키에서 필로폰 1kg과 1.7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09. 1.경 대만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1.2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2009. 2.경 일본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kg을 액자 2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3.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kg을 운동화 두 켤레 밑창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09. 6.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3.경 중국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987.9g을 책자 안에 은닉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8.경 루마니아인이 가나에서 필로폰 2kg을 여행용 가방 옆면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11.경 싱가포르인 3명이 대만에서 필로폰 1kg을 영양갱과 비누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말레이시아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1. 2.경 한국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2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1. 3.경 루마니아인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필로폰 1.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1. 4.경 한국인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필로폰 3.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1. 6.경 미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2.6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1. 9.경 한국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2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2. 3.경 한국인이 필리핀에서 필로폰 1.4kg을 골프백 밑 부분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2. 7.경 한국인이 홍콩에서 필로폰 1kg을 캐리어백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2. 8.경 영국인이 피지에서 필로폰 2.5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2. 10.경 한국인 6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7.4kg을 화물선에 은닉하여 포항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2. 11.경 독일인이 케냐에서 필로폰 1.8kg을 배낭 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3. 1.경 한국인 3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2.2kg을 신발 6켤레에 은닉하여 청주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3. 3.경 호주인이 필로폰 2kg을 허벅지 부위에 반창고로 붙여 은닉한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3. 3.경 한국인 2명이 미국에서 필로폰 1.3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성남지청)
- ④ 2013. 4.경 영국인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필로폰 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남태평양 피지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3. 5.경 일본인 2명이 마카오에서 필로폰 6.2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3. 8.경 한국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974g을 기계부품 안에 은닉하고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3. 10.경 독일인이 프랑스에서 필로폰 3kg을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후 다시 남태평양 피지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인천지검)
- ④ 2013. 12.경 한국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5.7kg을 대형 커피머신 2대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4. 2.경 한국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4.05kg을 아이스박스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4. 3.경 한국인 3명이 멕시코에서 필로폰 15.1kg을 라벨링 머신기계 내부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전주지검)
- ④ 2014. 4.경 한국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4.5kg을 핸드백 9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4. 6.경 한국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6.1kg을 배낭 등에 은닉하여 거제시 고현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4. 7.경 일본인이 홍콩에서 필로폰 6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4. 10.경 한국인 4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3.7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5. 1.경 대만인이 홍콩에서 필로폰 2kg을 복대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5. 3.경 말레이시아인 2명이 홍콩에서 필로폰 4.15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5. 4.경 한국인 3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6kg과 발기부전치료제 약 70만 정을 컨테이너 안에 은닉하여 평택항으로 밀수입 (평택지청)
- ④ 2015. 8.경 한국인 2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18kg을 선박 조리장실에 은닉하여 평택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5. 10.경 중국 국적 조선족이 중국에서 필로폰 805g을 화물로 가장하여 인천항으로 선박 배송 후 인천 부평구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5. 11.경 한국인이 중국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대구지검)
- ④ 2015. 12.경 미성년자인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96g을 복대에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6. 1.경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1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6. 3.경 캄보디아인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486.1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수원지검)
- ④ 2016. 3.경 중국 국적 조선족이 중국에서 필로폰 606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6. 4.경 인도인이 태국에서 필로폰 735.04g을 백팩 등받이 부분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6. 6.경 탈북자 출신 등 3명이 중국에서 필로폰 1,507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서울북부지검)

- ④ 2016. 6.경 한국인과 미국인이 미국에서 필로폰 686.6g을 안마의자 속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6. 10.경 의정부 주둔 미군 2명이 미군사우편물 이용하여 필로폰 4,122g을 밀수입 (의정부지검)
- ④ 2016. 11.경 「말레이시아인 2명 및 필리핀인 1명」과 「대만인 2명」이 대만에서 국제우편 이용하여 필로폰 2kg을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6. 11.경 한국인이 중국에서 필로폰 5kg을 밀수입 (울산지검)
- ④ 2016. 12.경 평택 주둔 미군 2명이 미군사우편물 이용하여 필로폰 4.1kg을 밀수입 (평택지청)
- ④ 2017. 4.경 대만인이 대만에서 국제특급우편 이용하여 필로폰 1kg을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7. 5.경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982.52g을 여행가방 하단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7. 8.경 중국 국적 조선족이 필리핀에서 필로폰 997g을 백팩 등받이 부분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7. 9.경 「대만인 폭력조직원」과 「재일교포 일본 야쿠자」 등이 중국에서 필로폰 16kg을 화물선 통해 밀수입, 8.6kg 압수 (서울중앙지검)
- ④ 2018. 2. ~ 8.경 대만 마약조직원들이 일본 야쿠자 및 국내 유통책과 연계하여 대만 등에서 필로폰 약 152.28kg을 밀수입 (인천지검 · 대구지검 · 서울중앙지검)

- ④ 2019. 1.경 한국인 2명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필로폰 약 3.4kg을 캐리어 2개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9. 2.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필로폰 약 5.27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9. 7.경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3kg을 신체 및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9. 11.경 한국인이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2.98kg을 퍼즐매트와 핸드백에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9. 11.경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500g을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8. 12. ~ 2019. 12. 말레이시아인들이 배낭, 신체, 의료기기, 여행가방, 운동화 등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40kg을 밀수입 (인천지검 · 부산지검)
- ④ 2019. 12. 31. 말레이시아인 2명이 독일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4kg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20. 2.경 한국인이 미국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6kg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20. 3.경 한국인이 태국에서 여행용 캐리어 안에 필로폰 약 1.46kg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20. 3.경 중국인이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580g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 ④ 2020. 4.경 한국인 2명이 미국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2kg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20. 4.경 한국인 2명이 미국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1kg 밀수입 (고양지청)
- ④ 2020. 5.경 한국인이 캄보디아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2kg 밀수입 (대전지검)
- ④ 2020. 6.경 한국인 2명이 캄보디아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1.7kg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20. 6.경 말레이시아인과 태국인이 말레이시아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500g 밀수입 (서울북부지검)
- ④ 2020. 7.경 태국인이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2kg 밀수입 (평택지청)
- ④ 2020. 7.경 말레이시아인이 말레이시아에서 여행용 캐리어 안에 필로폰 513g, 대마 90g, 야바 978정, MDMA 48정 및 26.34g을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20. 9.경 한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502g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20. 12.경 한국인이 말레이시아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997g 밀수입 및 필로폰 189g 소지 (대구지검)
- ④ 2020. 12.경 한국인이 미국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4.88kg 밀수입 (인천지검)

04

대 마¹³

1. 세계 동향 개요

- 대마는 가장 널리 재배되는 마약류로, 2010~2018년도 151개국(세계 인구의 96%)에서 대마 재배가 보고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마초 불법경작 현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함
- 실외 대마초 경작은 실내 재배보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2012~2018년도 사이 88개국에서 대마초 실외 경작과 관련된 사법 당국의 활동에 대해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실내 재배의 경우 64개국에서 관련 보고가 있었음
- 2012~2018년도 사이 대마초 실내 재배의 증가세가 실외 경작의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임
- 2018년도 세계 대마초 압수량은 4,303톤이고 대마 수지 압수량은 1,307톤임
- 2018년도 대마초 압수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이 아메리카 대륙인데 (62%), 남미 지역의 압수량만 따지면 세계 대마초 압수량의 44%를 차지함

¹³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BOOKLET 1. "EXECUTIVE SUMMARY, IMPACT OF COVID-19, POLICY IMPLICATIONS", BOOKLET 2, "DRUG USE AND HEALTH CONSEQUENCES", BOOKLET 3, "DRUG SUPPLY".

- 그러나 2010~2018년도 사이 세계 대마초 압수량의 약 50%를 차지하던 북미 지역에서의 압수량이 2018년 들어 17%로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캐나다와 미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이와 반대로 2008~2018년도 사이 남미 194%, 오세아니아 94%, 유럽 73%, 아시아 71%, 아프리카 53% 등 타 지역에서의 대마 압수량은 2배 정도 증가하였음

2. 소비(남용) 동향

- 대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흔히 남용되는 마약류이고, 2018년도 세계 15~64세 인구의 약 3.9%인 1억 9,200만 명이 대마를 적어도 한 번 이상 사용해 본 것으로 추정됨
- 또한 대마는 청소년기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로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15~16세 학생 1,300만 명이 적어도 한 번 이상 대마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아메리카 대륙 지역 전체로 보면 15~64세 인구의 8.8%가량이 대마초를 남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미국의 경우 18~25세 인구의 대마 남용 비율이 2007년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임
- 서·중부유럽의 경우 지난 10년간 15~64세 인구 중 대마 남용 비율이 6~7%선이었으나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대마 남용 비율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보고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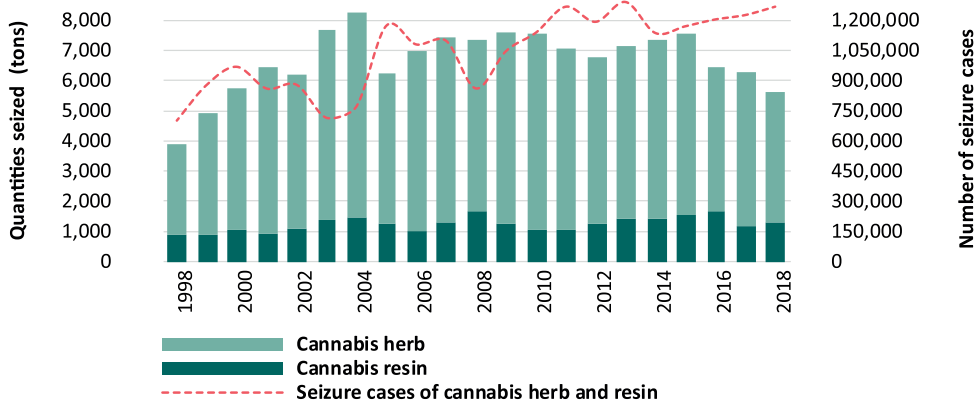
3. 생산 동향

- UN에서 취합한 대마 재배 면적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여 전 세계 대마 재배 면적을 추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 대마 재배 적발 건수 및 적발된 대마초 수량(대마 재배에 관한 간접지표)으로 추산한 대마 재배 현황은 해마다 변동이 있었는데,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대마 압수량과 대마 재배 면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거나 폐기된 대마 주(株)수와 단속된 대마 재배지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UN에서 취합한 질적 자료(qualitative information)에 의하면 2010~2017년도 사이 대마 재배 면적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2015~2017년도 사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8년도에는 감소세로 돌아섬
- 전 세계적으로 실외 대마 경작이 널리 퍼져 있으나, 실내 대마 재배는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미국과 캐나다, 남미 지역의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및 에콰도르에서 실내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오세아니아와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도 대마 실내 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호주와 뉴질랜드, 이스라엘, 아르메니아, 조지아, 이란, 우즈베키스탄 및 홍콩 등에서 대마 실내 재배와 관련된 보고가 있었으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대마 실내 재배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 2012~2018년도 사이 대마 실내 재배에 대해 보고한 국가의 43%가 대마 실내 재배가 증가했다고 보고한 반면, 20%의 국가가 실내 재배가 감소했다고 보고하여 증감폭을 계산하면 약 23%의 순증(net growth)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기간 실외 대마 재배의 경우 8%의 순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4. 밀매 동향

- 2018년도 전 세계 대마초 압수량은 4,303톤으로 2017년 대비 16% 감소하였지만, 대마수지의 압수량은 1,307톤으로 2017년 대비 13% 증가하였음
- 1998~2018년도 사이 대마 압수 건수는 연도에 따라 증감이 있어왔으나 장기적으로는 증가 추세인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018년도 140만 건의 압수 건수가 보고됨
- 2018년도 압수된 대마초와 대마 수지의 양은 5,610톤으로 2008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약 24% 감소함
- 2014~2018년도 사이 4대 마약류(암페타민류, 대마, 코카인 및 아편)를 원인으로 입건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대마를 취급하였고, 그 뒤로는 암페타민류(19%), 코카인(11%) 및 아편(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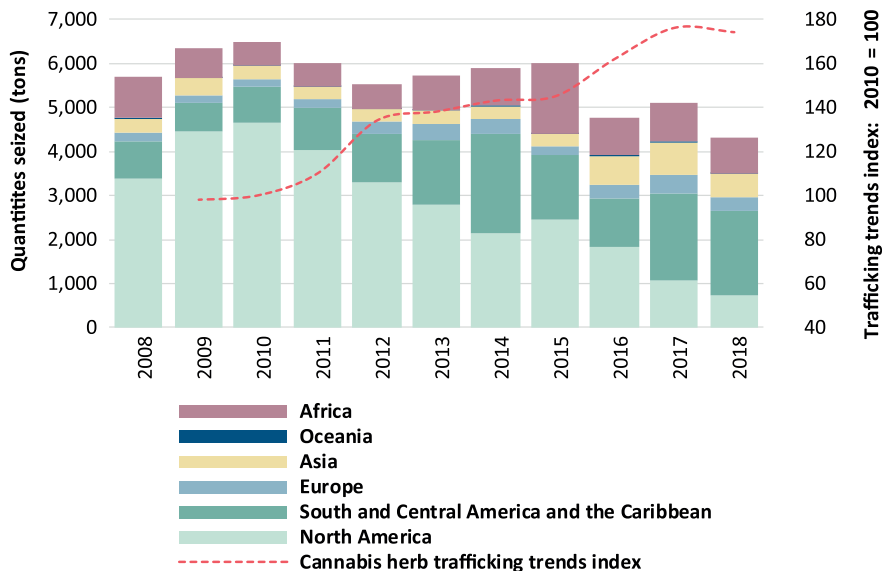
[그림 2-23] 세계 대마 압수량(톤), 압수건수 및 대마초와 대마수지 압수건수(점선) 1998~2018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 ④ 대마 사용자가 세계적인 증가추세임에도 대마 압수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뚜렷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대마 압수량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거나 전 세계 대마 압수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법 당국의 우선순위에서 대마가 제외됨으로써 대마 압수량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 ④ 2018년도 전 세계 대마초 및 대마 수지 압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는 파라과이, 미국 및 인도로 대마초의 경우 전체 압수량의 약 44%, 대마 수지의 경우 전체의 약 61%를 차지함

[그림 2-24] 대마초 압수량(톤) 및 대마초 밀매 지수(점선, 2010년 100기준) 2008~201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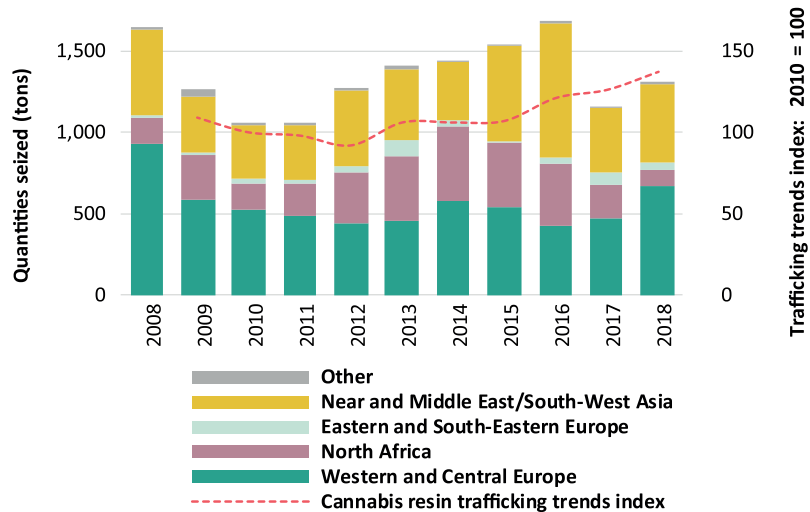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 ④ 대마 수지 밀매는 대마초보다 지역적 편중이 심하여, 2018년도 통계에 따르면 세계 밀매량의 50%가 서·중부유럽에서 압수되었고 중동지역에서 37%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8%가 압수되어 이 세 지역에서의 대마 수지 압수량이 세계 압수량의 96%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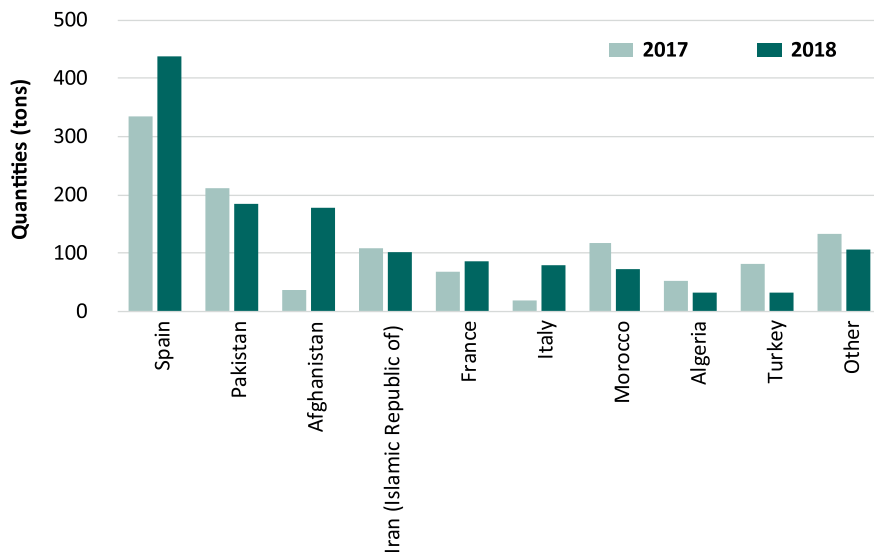
- ④ 국가별로 보면 2018년 대마 수지 압수량이 가장 큰 국가는 스페인으로 400톤이 넘는 수치를 보였고,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이 그 뒤를 따름

[그림 2-25] 세계 대마수지 압수량(톤) 및 밀매지수(점선, 2010년 100기준) 2008~2018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그림 2-26] 대마수지 주요 적발국 별 압수량(톤) 2017~2018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20

5. 대마에 대한 국제 규제 변화

- 2020. 12. 2.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 산하 마약위원회(the Commission on Narcotic Drugs)는 회원국들의 투표를 통해(찬성 27, 반대 25, 기권 1) 대마초 및 대마수지를 「1961 마약단일협약(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s Drugs of 1961」 규제등급 IV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함
- 위 투표에 따라 대마초 및 대마수지는 1961 마약단일협약 규제등급 IV에서 제외 되었으나 여전히 동 협약 규제등급 I에 속해 있는바, 옥시코돈이나 모르핀과 유사한 정도의 의존성 및 남용 위험도를 가진 것으로 재분류된 것임
- 위 마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마초 및 대마 수지에 대한 연구나 의료용 대마 관련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장애가 되어왔던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6. 국내 대마 관련 추세

[표 2-4] 연도별 대마사범 단속 추세

(단위 : 명)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단속인원	1,189	1,042	1,177	1,187	1,139	1,435	1,727	1,533	2,629	3,212
증감율(%)	-35.3	-12.4	13.0	0.8	-4.0	26.0	20.3	-11.2	71.5	22.2

- 대마 대량 밀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바, 주요 사례로는 2012년도 미국인이 미국에서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대마 약 944g 밀수입, 2013년도 러시아인이 러시아에서 대마 약 946g 등을 선실 내에 은닉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밀수입, 한국인 2명이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마 약 837g 밀수입, 2014년도 미국인이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마 약 445g 밀수입, 2015년도 부산항에 정박한 캐나다발 대만행 선박에서 대마 약 9kg 적발, 2016년도 한국인 2명이 캐나다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마 약 863g 밀수입 등임

- ④ 2017년도에는 한국인 2명이 독일 등에서 대마 2.1kg 밀수입 및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1kg 밀수입, 2018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19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채 입국하여 밀수입,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약 2.25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 등임
- ④ 2019년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20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채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대만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약 2.7kg 및 MDMA 약 85g 밀수입, 나이지리아인이 태국에서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초 약 1.9kg 밀수입 등임
- ④ 2020년도에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대마 260g, MDMA 20g, LSD 20장 밀수입, 우크라이나인이 우크라이나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수지 약 200g, 대마 약 103g, 메스케치논 유사체 약 23g 밀수입, 한국인 2명이 미국에서 항공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마 약 433g 밀수입, 한국인 2명이 미국에서 항공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마 225g 밀수입, 한국인이 중국에서 필리핀을 경유하는 선박 컨테이너 안에 대마 약 3.8kg을 은닉하여 밀수입 등임
- ④ 한편 미국 일부 주, 캐나다 등 북미 지역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여행자, 유학생 등의 대마 및 대마 관련 제품 등을 밀수, 흡연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임

주요 대마 밀수사건

- 2007. 2.경 한국인이 태국 방콕에서 대마 200g을 비닐랩에 넣고 압축한 뒤 팬티 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포항지청)
- 2008. 1.경 일본인이 태국 방콕에서 대마 농축액인 해시시¹⁴ 약 300g과 엑스터시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마신 후 몸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3.경 러시아인이 러시아 자루비노항에서 해시시오일¹⁵ 약 86.65g을 화장품 용기 안에 은닉하여 속초항으로 밀수입 (속초지청)
- 2008.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1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8. 7.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약 114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제주지검)
- 2009. 1.경 한국인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마 948g 및 대마수지 12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2009. 5.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각 5.1kg, 5.1kg을 나무 조각품 2개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¹⁴ Hashish는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 후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8~10배 강함

¹⁵ Hashish Oil은 해시시를 반복 증류하여 추출되는 것으로 그 효능이 해시시보다 2~3배 정도 강함

- ④ 2009. 6.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대마쿠키¹⁶ 60개(약 1,497g)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창원지검)
- ④ 2009. 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4.3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09. 7.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6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09. 10.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쿠키 802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1.경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대마쿠키 147.9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1.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쿠키 200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0. 2.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쿠키 171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1. 8.경 캐나다인이 캐나다에서 대마 약 92.5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몸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2. 7.경과 10.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505g을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수원지검)

¹⁶ 대마쿠키(weed cookie)는 대마성분인 칸나비노이드가 함유된 대마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쿠키로 만든 것임

- ④ 2012. 8.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대마쿠키 853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진주지청)
- ④ 2012. 9.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944g을 미군사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 서부지검)
- ④ 2013. 5.경 러시아인이 러시아에서 대마 946g 및 해시시 55g을 선실 내에 은닉하여 부산 감천항으로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3. 7.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에서 대마 약 837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4. 10.경 네덜란드인이 네덜란드에서 대마 100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의정부지검)
- ④ 2014. 10.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445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④ 2015. 3.경 우리 국민이 말레이시아에서 대마 약 35.02g, MDMA 3.39g, 사일로신 20.47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④ 2015. 4.경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대마 약 4.5g을 팬티 속에 은닉하여 대구공항으로 밀수입 (대구지검)
- ④ 2015. 6.경 부산세관이 부산항에 정박한 캐나다발 대만행 선박 (선박국적은 파나마)을 수색하여 향신료로 위장한 대마 약 9kg을 적발 (부산지검)
- ④ 2015. 12.경 이집트인이 이집트에서 대마 16.37g 및 대마수지 23.21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포항지청)

- ④ 2016. 2.경 우리 국민 2명이 캐나다에서 대마 863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남부지검)
- ④ 2016. 3.경 우리 국민 2명이 캐나다에서 대마 438.5g을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7. 4.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대마 277.61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북부지검)
- ④ 2017. 4. ~ 9.경 우리 국민 2명이 독일, 영국, 캐나다에서 대마 약 2.1kg을 국제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동부지검)
- ④ 2017. 5.경 일본인이 영국에서 대마 199.67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대구서부지청)
- ④ 2017. 5.경 우리 국민 4명이 스페인에서 대마 511.39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평택지청)
- ④ 2017. 7.경 우리 국민 5명이 태국에서 대마 151.91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서부지검)
- ④ 2017. 7.경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약 1kg을 국제소포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7. 10.경 우리 국민이 베트남에서 대마 약 1.2kg을 휴대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7. 10.경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대마 450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7. 12.경 우리 국민이 미국에서 대마 2.2k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창원지검)
- ④ 2018. 6.경 지방외국인학교 교사인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1.7kg, 대마 초콜릿 4개, 대마 카트리지 10개 등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광주지검)
- ④ 2018. 8.경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대마 2.25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8. 10.경 미국 국적 교포가 미국에서 대마 2.25kg을 여행용 가방 2개에 각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8. 10.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19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19. 5.경 우리 국민 2명이 미국에서 대마 약 415g을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서울중앙지검)
- ④ 2019. 6.경 남아프리카공화국인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약 20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홍콩을 경유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수입 (제주지검)
- ④ 2019. 7.경 나이지리아인이 태국에서 대마초 약 1.9kg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9. 8.경 대만계 미국인이 미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대마 약 2.7kg, MDMA 약 85g을 은닉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19. 11.경 미국인이 나이지리아에서 대마 약 1.25k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수입 (인천지검)

- ④ 2020. 1.경 한국인이 미국에서 국제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대마 260g, MDMA 20g, LSD 20장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20. 4.경 우크라이나인이 우크라이나 등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수지 약 200g, 대마 약 103g, 메스케치논 유사체 약 23g 밀수입 (안산지청)
- ④ 2020. 6.경 한국인 2명이 미국에서 특송화물우편을 이용하여 대마 약 433g 밀수입 (대전지검)
- ④ 2020. 6.경 ~ 8.경 한국인이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대마수지 11.6g, 대마수지 9.65g, LSD 100장, 대마 63.26g, 대마 10.09g, MDMA 101정, LSD 30장, 대마오일 3병 밀수입 (부산지검)
- ④ 2020. 9.경 한국인 2명이 미국에서 항공 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대마 약 225g 밀수입 (고양지청)
- ④ 2020. 11.경 한국인이 중국에서 필리핀을 경유하는 선박 컨테이너 안에 대마 약 3.83kg 밀수입 (부산지검)

